

# 새 活路 찾는 불교서적 출판

## 80년대 이후 '교양불서' 등 출간... '민중불교'도 한몫

한국의 출판문화는 역사적으로 佛書간행에 그 始源을 두고 있다. 삼국시대의 이른바 '新羅寫經'이라든지, 혹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책의 날'이 고려대장경 완간을 기념해 정해진 예 등에서 보듯, 우리의 출판문화는 불서간행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비록 抑佛崇儒라고는 하나, 佛書는 儒書나 家集 등과 더불어 우리출판史의 가장 굵은 가닥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불탄 2532주년을 맞아 언필칭 1천 5백만 신도를 자랑하는 오늘날 불서출판의 현황은 어떠한가? 역사적 연원의 유구함이나 신도의 규모에 비추어 불서출판은 과연 흡족할 만한 수준인가?

### 신도 32명당 1권꼴

우선, 양적인 면에서 대답은 긍정적인 수 없다. 전체 출판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도서와의 상대비교에서도 불서는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출판협회의 납본도서목록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37,411종의 도서가 발행됐던 1986년의 경우 종교서적은 그 7.7%에 해당하는 2,874종이었고, 그중 불교도서는 186종으로 종교서적의 6.5%에 불과했다. 1987년에는 전체 출판종수 38,301종 가운데 종교서적이 3,173종으로 8.3%, 그리고 불교도서는 112종으로 종교서적의 3.5%에 불과해 전년에 비해 출판종수의 절대량과 상대비교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같은 경향은 올해에도 대체로 지속되고 있는데, 4월말 현재까지 출판협회에 납본된 불교도서는 모두 14종으로, 372종 달하는 전체 종교서적의 3.7%에 그치고 있다.

한편, 발행부수에 있어서 1987년 종교서적 평균발행부수 3,301부를 불교서적에 그대로 대입해도 1987년 한해동안 간행된 불교서적은 369,712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신도 32명당 1권의 책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단순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량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불교인이라면, 혹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사서 읽을 수 있는 책이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불교전문지 월간「대원」87년 6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의 불교출판현황을 '빈혈

에 허덕인다'고 지적한 르브라이터 이칭씨에 의하면,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학다들이나 일부 지식인이 아니면 감히 읽어볼 마음조차 일지 않는 책, 스님들의 잡글을 모은 수상록,

**우리 出版史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불교서적의 출판현황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한 편이다. 우선 출판물량이 기독교서적의 10%에도 못미치고, 그 내용도 경전번역 등이 주류를 차지한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일반독자를 위한 '교양불서'가 꾸준히 간행되면서 불교출판의 폭과 깊이가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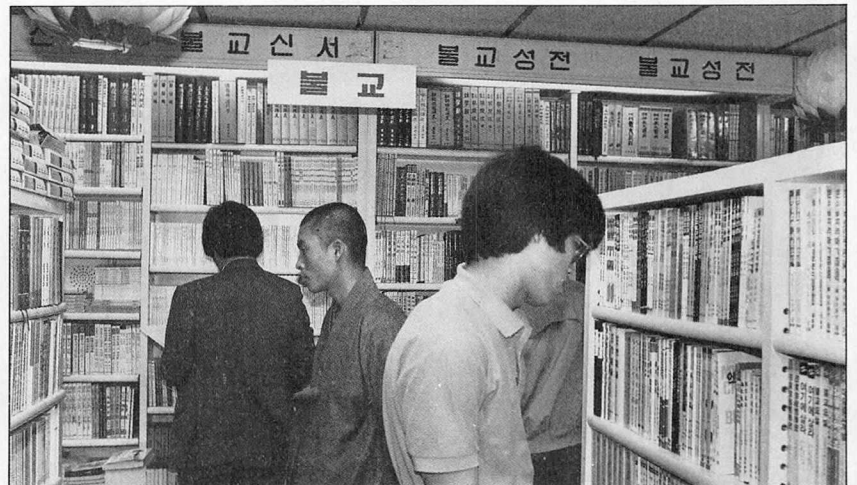
그리고 경전보다 더 난해한 범문집 등이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불서의 대종을 이룬다는 지적이다. 한편, 모두 870여종의 불교도서목록이 올라 있는 교보문고 88년판 「도서목록」을 검토해보더라도 경전이나 교리해설서, 신앙 지침서 따위가 역시 주종을 이루고 있어 불교 신도를 비롯한 일반독자들이 불교의 핵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책들이 매우 드문 형편이다.

### 최근 들어 '교양불서'의 출간 활발해져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의 우리 불교출판은 몇가지 바람직한 변모를 보이며 주목을 끌고 있다. 전반적인 침체상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싹트는 의욕적인 움직임들이 부쩍 눈에 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80년대 들어 민족사, 경서원, 불일출판사, 우리출판사, 대원정사, 장경각 등의 불서전문출판사들이 새롭게 등장, 기왕의 동국대 출판부 및 역경원, 보련각, 법문사, 흥법원 등과 함께 불교출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불서의 간행이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컨대, 최근 1~2년 사이에 일반독자의 큰 관심을 끌었던 禪이나 密敎를 다룬 책, 혹은 한때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던 「불타와 예수」 「법화경과 신약성서」 류의 책들은 그것이 과연 불서출판의 本流일



80년대 이후 '교양불서' 등으로 불교출판의 폭이 다양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서점들의 불교서적 코너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수 있겠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같은 다양화의 한 방증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의 불서출판이 출판사 단위의 시리즈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일반독자를 위한 '교양불서'라는 특징도 보인다.

이 중 1978년 「高麗高僧漢詩選」을 제1권으로 시작한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의 「現代佛敎新書」는 교양불서시리즈의 선편을 잡은 기획으로서 현재 61권째까지 나와 있다. 한국 불교연구원의 「木鐸新書」 또한 비교적 연조가 오랜 시리즈로서 1978년 「宗敎史話」가 제1권으로 나온 이래 지금까지 8권이 발행됐다.

그밖에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대원정사의 「성자시리즈」, 장경각의 「藏經新書」, 불일출판사의 「佛日小冊」, 해뜸의 「삶 속의 禪書」 등이 나와 있는데, 문고본 판형에 깔끔한 편집으로 불서의 대중보급이란 점에서 진일보의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각 12권 및 7권째가 나와 있는 고려원의 「다르마총서」와 지양사의 「止揚佛書」의 경우는 일반출판사에 의한 교양불서 개발의 좋은 예라고 할 만하다. 특히 「止揚佛書」는 여래, 풀빛사의 몇몇 단행본, 그리고 일월서각의 불교무크지 「실천불교」 등과 더불어 80년대 이후의 「민중불교바람」과 관계하여 산중불교, 기복신앙의 구각을 깨뜨리는 젊은 불교인들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보다 본격적인 「불교학」 저서로는 현재 5권째가 나와 있는 민족사의 「佛敎學論集」이 대표적이다. 민족사는 이밖에도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韓國佛敎美術史論」 등의 단행본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일지사, 동화출판공사 등의 불교학저서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연구의 구체적 수준을 보이는 책들로 평가된다.

### 번역서 위주에서 벗어나야

그러나, 최근 우리 불교출판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다양화,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적지 않다.

우선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성경」과 같이 신도나 일반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불교의 요체를 빠짐없이 담고 있는 간추린 한글경전의 발간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양 종단에서 이미 발간한 바 있는 축약된 「한글불교성전」 및 「불교성전」의 경우, 제대로 보급돼 있지도 않고 그 내용도 첨삭과 증보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고 보면, 이 작업은 동국대 역경원에서 추진 중인 방대한 규모의 대장경 역경사업과 함께 불교출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불서의 한글화작업 또한 불서의 대중적 보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미 신라시대에 향가를 통해 불교적 진리의 우리말화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요즘은 대부분의 불서들이 드러내는 어렵고 생경한 어투는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능력있는 필자의 개발과 그에 따른 불교출판의 다양화이다. 예컨대, 일반독자를 위한 교양불서의 경우 일본책의 번역이 대부분인데, 이는 우리 불교학자나 스님들이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 한국불교는 이제 禪房에서 不立文字의 話頭를 논하기에 앞서 대중을 상대로 한 敎學에 보다 치중할 때라는 점에서, 그 교학의 구체적 수단인 저술과 출판활동에 더 많은 불교학자나 스님들이 필자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철주 기자